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스마트폰 제조 계획(MPMS) 확정

스마트폰 제조 계획 정식 고시. 생산 확대, 부품 국산화, 로컬 브랜드 육성 추진

인도 정부가 6,250억 루피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 계획(Mobile Phone Manufacturing Scheme, 이하 MPMS)을 발표했다. FY2027년부터 FY203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품의 현지 조달과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은 모디 정부가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 정책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Make in India의 연장선에서 2020년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도입했으며, 14개 지원 산업 중 전자제품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배정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도는 단순한 스마트폰 소비시장에서 글로벌 생산·수출기지로 빠르게 전환됐으며, 스마트폰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약 8배 증가해 PLI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MPMS는 지난 3월 종료된 전자제품 PLI(PLI-LSEM)를 잇는 후속 지원책으로, 크게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의 인도 내 생산 확대(TS1)와 자체 로컬 브랜드 육성(TS2)이라는 두 트랙으로 구성된다. TS1은 FY2026년 기준 매출 1,000억 루피 이상인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500억 루피의 추가 매출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수출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품의 현지 조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다. 인도 현지에서 조달한 핵심 부품이 연간 휴대폰 생산 대수의 25% 이상에 적용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 1.5%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PLI를 통해 스마트폰 완제품 생산과 수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국내 부가가치 확대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도산 부품 사용을 직접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하고, 생산 확대가 국내 부가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MPMS는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업 육성 정책이 생산 규모 확대에서 공급망 고도화로 한 단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발표 직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존 PLI 종료에 따른 인센티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MPMS가 높은 매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수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산기지가 인도로 이전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완제품 생산 확대와 부품 현지화를 유도하고 있어 스마트폰 제조 생태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책 수혜 강도는 기업별 추가 생산 계약 확보와 출하량 확대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정책의 초점이 부품 현지화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Kaynes Technology, Syrma SGS Technology 등 핵심 부품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 인도 스마트폰 제조 계획(MPMS) 주요 내용

MPMS 주요 내용		
정책 목적	스마트폰 생산 확대, 국내 부가가치 제고, 부품 현지화 및 인도 자체 브랜드 육성	
시행 기간	FY2027~FY2031, 5년	
총 예산	6,250억 루피	
기대 효과	시행 기간 동안 누적 생산액 39조 루피 / 직접고용 약 6만 명 창출	
세부 내용	TS1: 인도 내 스마트폰 제조 확대	TS2: 자체 브랜드 육성
지원 대상	인도 내 스마트폰 제조사	Indian Brand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 기업(인도 내 법인 설립 및 등록, IP·상표권 보유, 인도 시민의 경영권 행사 및 51% 초과 지분 보유, 인도 내 자체 R&D 역량 보유)
FY2026 기준 매출	1,000억 루피 이상	100억 루피 이상
매출 증가 요건	매년 500억 루피	없음
기본 인센티브	매출의 2.25~5%	매출의 5% / 인도 내 R&D 시 추가 3%
현지 부품 조달 인센티브	현지 조달 핵심 부품이 연간 휴대폰 생산량의 최소 25%에 적용될 경우 최대 1.5%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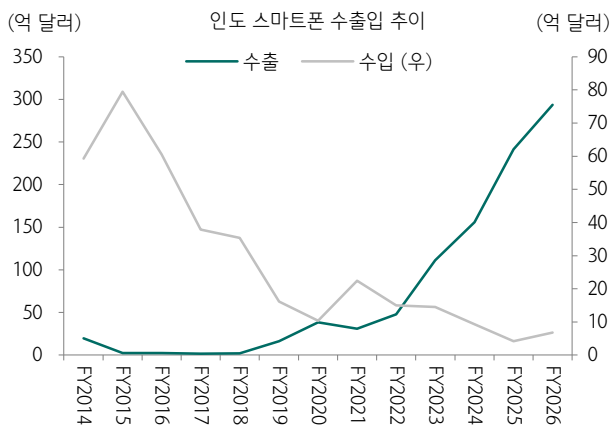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Electronics & IT,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지원 산업 및 규모

PLI 핵심 14개 분야 및 예상 지원 규모					
분야	규모 (달러)	승인 기업	분야	규모 (달러)	승인 기업
전자기기·모바일	46억	애플, 삼성전자, 폭스콘	식품	13억	힌두스탄, 할디람, Parle Agro
자동차·부품	32억	현대차, 기아, 타타, 도요타, 스즈키	섬유·의복	12억	영원무역, AYM Syntex
태양광	28억	퍼스트 솔라, 아다니, 릴라이언스 뉴에너지	원료·의약품	8억	Granules, Karnataka Antibiotics
배터리	22억	현대차, 릴라이언스 뉴에너지	백색가전	7억	LG전자, 미쓰비시, 아다니
의약품	19억	썬파마, 씨플라	특수강	7억	타타스틸, JSW, 진달스틸
통신	14억	노키아, VVDN, 플렉스트로닉스	의료기기	4억	필립스, 엘라이드 메디컬
IT H/W	20억	델, HP, 레노버, 폭스콘, 아수스	드론	1441만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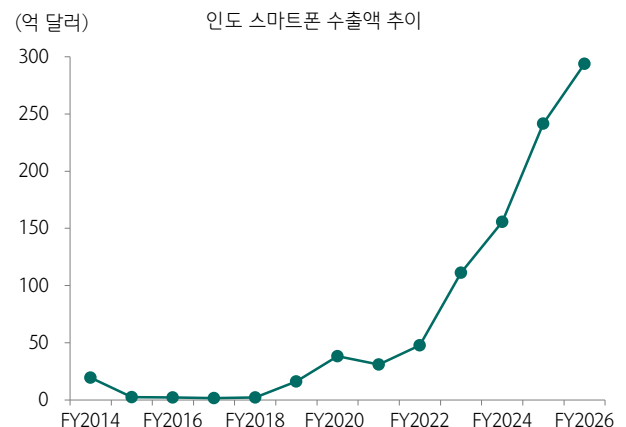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Electronics & IT,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스마트폰 수출입 추이 비교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스마트폰 수출액 추이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하나증권